

이홍재의 세상만사

소리 없이 성공한 완도 해조류 박람회



본설고문

밭도둑은 간장게장만이 아니었다. 김 한 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푹딱 해지울 수 있었다. 그야말로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 연탄불에 구울 때는 그 구수한 냄새가 입안에 침을 돌게 하고, 장에 찍어 먹으면 어느새 밥 한 공기 가 사라지곤 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생각해보면 이 또한 다소 '있는 집안'의 사치였을지도 모르겠다.

김은 바닷속(海) 바위에 이끼(苔)처럼 붙어 자라기 때문에 해태(海苔)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해우'란 말을 더 많이 썼다. 물론 표준어는 해의(海衣)다. 옛 사람들은 바위에 붙은 김을 보고 얇은 옷(衣)을 연상했다 보다. 세종실록엔 해의(海衣)가 중국어로 보낼 물품 중 하나로 나와 있다.

김은 왜 김이라 했을까. 이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김여익이란 사람이 있었다. 처음으로 김 양식법을 찾아내 보급한 사람이다.

그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이후 태인도에 숨어 살았다. 그러던 중 바닷물에 밀려온 김이 바위에 붙어 사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친다. 소나무 가지 등을 이용한 김 양식을 생각해 낸 것이다.

이후 김은 왕실에 바치는 인기 높은 특산물 이 됐다. 하루는 임금이 김을 맛있게 드신 후

이름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한 신하가 "광양 땅에 사는 김 아무개가 만든 음식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이 "그럼 앞으로 이 바다를 그 사람 성을 따서 김으로 부르도록 하여라"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김을 언제부터 먹게 됐을까. 기록으로만 따지면 신라시대부터다. 그 당시 동해 바닷가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해조를 따라 나갔다가 신발을 벗고 바위섬에 올라섰다. 한데 갑자기 바위섬이 움직이더니 일본으로 가게 된다. 일본에 간 그는 왕이 되었다.

'바다의 채소' '바다의 보물'

이후 아내도 남편을 찾아 바닷가에 나갔다가 바위섬에 오른다. 이번에도 바위섬이 움직이고 그녀는 남편을 만나 귀비(貴妃)가 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 이야기다.

이야기 중에 "하루는 연오가 해초를 따고 있었다"(一日延烏採海菜)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해초(藻)가 바로 김이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해 미역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산모가 미역을 먹는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

됐을까.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부터다. "고려 사람들은 고려가 미역을 뜯어 먹고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 당나라 때 편찬된 '초학기(初學記)'에 보이는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새 깃털을 낚은 고래에게 삼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됐다. 고래 뱃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는 미역이 산후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이를 당시 구전돼 오던 이야기라면 서 기록에 남겼다.

김과 미역, 톳과 다시마, 파래와 톳, 우뚝가사리와 매생이 등등. 이를 통틀어 해조류(海藻類)라 한다. 여기에서의 '조(藻)'는 '물 속의 풀'을 뜻하는 한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선 해조류를 '바다의 채소'로 여긴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다의 보물'이다.

우리는 해조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미노산·불포화지방산·식이섬유·요오드 등이 풍부하다. 그래서 변비와 빈혈 그리고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에 좋다. 이런 것들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해조류 소비왕국인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장수(長壽) 국가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 서양 의학계는 해조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몰랐던 것은 따로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무려 500여 종의 해조류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0여 종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몸에 해롭지 않은 엠에스지(msg)가 해조류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밖에 바다 식물이 지구 산소의 70%를 만들어 낸다는 것. 게다가 해조류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러니 다시마나 우뚝가사리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주유소에서 해조류 연료가 판매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을지라.

다시마로 움직이는 자동차

더욱 놀라운 것은 우뚝가사리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제 앞으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황홀한 발명이고 환상적인 발명품인가." 소설가 조정래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의 칼럼을 좀 더 읽어보자. "어서 해조 종이와 대량 생산되어 원고지를 수만 장 쌓아 놓고 싶다. 거기서 바다 내음이 그윽하고 아슬하게 풍겨올 것이다."

완도해조류박람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일본에서 기술을 들여온, 상온에 두어도 일정 시간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분지에 담긴 액체를 물에 찌내면, 그대로 국수 가락으로 변하는 신기한 해조류 국수.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흥행 요소도 충분했다.

세계 유일, 세계 최초의 해조류박람회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개막 5일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그리하여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라는 말을 쉽사리 입에 꺼낼 수 없었음에도. 한 달 동안 53만 명이 다녀갔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성공'이었다. 우리도 몰랐던 완도 해조류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었다.

이 모든 것을 기쁘고 추진한 김종식 완도 군수는 "박람회와 완도의 역사를 바꿨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완도의 새로운 길 위에서 늘 행복했다"며 감회에 젖었다.

그런 김 군수가 오늘 퇴임식을 '복 콘서트'로 대체한다고 한다. 3선 12년의 열정과 애환을 담은 회고록 '창조의 길을 열다'라는 책을 들고서.

(이 글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미뤄 놓았던, 뒤늦게 김종식 군수에게 바치는 헌사(獻辭)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배 재배 14년째 감소...사과는 늘어

통계청, 올 재배면적 조사

나주를 주산지로서는 배 재배면적이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사 포기 및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농지감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재배면적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 보리·봄감자·사과·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배 재배면적은 1만312ha로 지난해 1만3740ha보다 613ha(-4.5%) 감소했다. 배 재배면적은 지난 2001년부터 14년째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배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난 것과, 전남 나주와 울산 울주, 경기 안성·평택, 충남 천안 등 배 주산지가 공공기관 이전, 개발용지 편입 등으로 변화를 겪은 것이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나주 등 전남지역의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 3602ha에서 1454ha(4.0%)가 준 3457ha였다. 영암과 순천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50ha(14.4%)와 237ha(18.3%) 감소했다. 반면 사과 재배면적은 올해 3만702ha로



광주 남구 대지동 밀 수확 현장.

■ 전남지역 주요 작물 재배현황

작물	재배면적
배	3457ha(1454ha)
사과	308ha(8ha)
보리	1만5084ha(3742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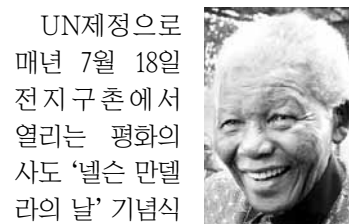
지난해 3만449ha보다 253ha(0.8%) 증가했다. 이는 최근 사과 가격이 오르는데 지자체 등이 사과 농사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재배지역이 전북, 경남 산간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재배가 늘어난 덕분이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300ha에서 8ha가 늘어 308ha로 조사됐다. 올해 농협이 계약단가를 인상한 영향으

로 보리 재배면적은 지난해 3만3064ha보다 4605ha(13.9%) 늘어난 3만7669ha로 나타났다. 전국 보리 재배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전남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742ha 증가해 1만5084ha로 늘었다.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는 모두 재배면적이 늘었으나, 다른 보리에 비해 수확이 늦어 벼의 이모작에 불리한 밀은 재배면적이 7180ha로 작년보다 193ha(-2.6%) 감소했다.

봄감자 재배면적은 올해 1만556ha로 지난해 2만977ha보다 5381ha(-25.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넬슨 만델라의 날' 광주시도 열린다



UN제정으로 매년 7월 18일 전 지구촌에서 열리는 평화의 사도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식 및 강연회가 올

해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한 남아공대사관 힐든 안토니 데니스 대사와 넬슨 만델라 국회 추모 및 기념사업위원회 김영진 대표(5·18유네스코 아카이브 이사장)는 27일 오전 희망광주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과 만나 기념식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데니스 대사는 "넬슨 만델라의 날 행사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인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이며 고난의 80년대 동아시아 민주화운동을 추동한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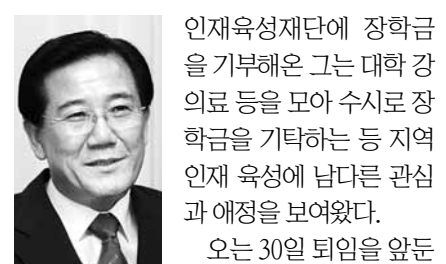
박준영 지사, 진도 주민에 장학금 2000만원

군인재육성장학회에... '세월호' 봉사 주민 등 격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적 공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진도를 돕자는 여론(광주일보 6월25일자 1면)이 알고 있는 가운데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자비 2000만원을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

박 지사는 이 기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조도면 어업인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진도읍사무소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을 보살피고 수색작업을 지원한 조도면 주민들과 자원봉사 단체를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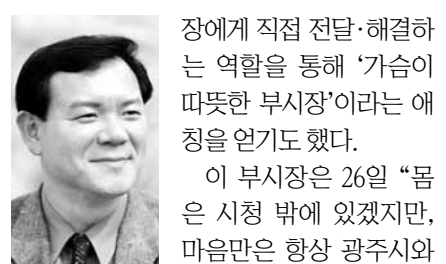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해온 그는 대학 강의로 등을 모아 수시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다. 오는 30일 퇴임을 앞둔 박 지사는 "세월호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인재"라며 "상처는 하루 속히 치유돼야 하지만 세월호의 교훈은 결코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이형석 경제부시장 30일 퇴임

이형석(53) 광주시 경제부시장인 오는 30일 광주시장을 떠난다.

지난 2012년 10월 부임한 이 부시장은 광주시의회(최연소 의장)와 중앙 정치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화합과 경제 살리기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시장은 특히 재임기간 동안 광주시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광주시



장에게 직접 전달·해결하는 역할을 통해 '가슴이 따뜻한 부시장'이라는 애정을 얻기도 했다. 이 부시장은 26일 "몸은 시청 밖에 있겠지만, 마음만은 항상 광주시와 함께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시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Kam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이드름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 부직용 : 수술초기 이안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NAVER **단비플라워** 7월4일생일 대비플라워를 준비합니다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 한도는 높게 ↓ 금리는 낮게

Up&Down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 · 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